

2023년 03월 26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23편 1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453(통506)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20장 12~29절(구약p.780)

12.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13.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14.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15.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16.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17. 그는 강 곧 꿀과 영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18.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 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19.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었나 자기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20. 그는 마음에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21.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22.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물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23.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 같이 쏟으시리라
24.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25.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축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26.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27.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28.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29.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 말씀선포 / 악인의 열매

소요리문답 제 일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답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통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에 맞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는 단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변화와 회복을 통한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했고,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으며,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며, 에베와 찬송으로 우리 입술에 열매를 맺어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발은 악한 자들이 맺는 악인의 열매가 있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맺는 악한 열매들은 사람의 입에는 맛있을지 모르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못하고 고통과 역겨움을 줄 뿐입니다. 그럼에도 악한 열매들이 처음에는 삶의 풍성함과 안락함을 약속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전히 악을 선택하여 악인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할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악인의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소발이 말하는 악인의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1. 모은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열매입니다.

- 본문 15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 또 18절입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 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이 그들의 삶에 맺게 되는 악인의 열매는 상실감이라고 소발은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 수고하여 얻은 재물은 결국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토해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얻은 재물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돌아갈 몫을 빼앗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은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것을 모으는 방법이 정당해야 한다는 분명한 진리를 무시합니다. 쌓여 가는 재산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며 오히려 많은 자들에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재물을 삼키기 전에 독으로 변하게 하사 뱉어내게 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소발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소발은 욕이 악인이요, 욕이 모았던 재산을 잃게 된 이유를 이와 같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었 자기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따라서 지금 욕을 향한 소발의 공격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물질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때로 소발의 조언을 통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재물에 대한 탐욕에 이끌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하여 임금을 체불 하는 회사, 산업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치료비를 제대로 지불 하지 않는 직장의 이야기들을 접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가 속한 직장 사회에서 이러한 악한 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 사회 운동을 하고, 노동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스스로가 먼저 땀 흘려 성실히 물질을 얻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의한 재물을 취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더욱 신중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되 악한 재물은 독이 된다는 성경의 진리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재물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재물을 쌓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지 말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맛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쓴물을 단물

되게 하사 먹이셨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부족함이 없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더욱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 성실하고 진실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맹렬한 진노를 받는 열매입니다.

- 본문 23절입니다.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 같이 쏟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소발은 더욱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드러내시며 두려워했던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발은 옴을 빗대에 악인은 기뻐하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진노가 화살이 살을 뚫는 것처럼 임한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고난 당하는 옴을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옴이 하나님 앞에 악인이기에 하나님의 독화살을 맞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4~25절입니다.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축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소발은 옴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쏜 진노의 화살을 맞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분명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에 대해 진노하시고 확실하게 처벌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보여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을 받을 우리의 운명을 오히려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오롯이 감당하심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에서 벗어나 생명과 자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로서 하나님을 위해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방종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악으로 향하는 이웃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 내는 영혼 구령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천국을 소유한 성도는 이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알고 더욱 악의 열매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에 이끌려 이웃을 해친다면 악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사랑을 선택할 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며,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참으로 이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함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447(통448)장 이 세상 끝날까지

◎ 폐 회 / 주기도문